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도내 고용서비스 허브 역할 강화

### 전북도 일자리센터, 통합기관으로 새 구축

중장년·청년·여성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계층별 특화 취업 지원

전북도 일자리센터가 새로운 동지를 마련, 지역 내 고용서비스 허브 기관으로서 역할 강화에 나섰다. 그동안 전북도청 1층 민원실 내에서 운영된 일자리센터가 도청 인근 건물(효자로 173, 나우빌딩 4층)을 임차해 전문상담실, 1인 미디어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실과 편안한 카페공간 등 공간을 새롭게 구축해 확장 이전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송지용 전북도의회의장, 조지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박광진 전북청년허브센터장, 이운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했으며, 청년·중장년·여성·기업·대학 등 다양한 도민들이 온라인으로 함께해 새 출발을 축하했다.

그간 구인·구직자의 취업 알선을 집중으로 운영되던 일자리센터는 앞으로 중장년·청년·여성 등 계층별, 재직자·구직자·기업 등 수요층별 전문 상담을 해 직업훈련부터 취업 알선과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기관으로 거듭난다.

특히, 보다 다양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위해 시·군일자리센터, 전북청년허브센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신중년희망센터, 새일센터, 노인일자리센터 등 지역내 일자리 기관들과 연

계해 다양한 취업정보와 직업훈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관련 협회, 기업과 제휴를 통해 신규 일자리를 개발하고, 민간 취업포털 사이트와도 협약을 맺어 다양한 직종의 구인기업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장애인복지센터, 창업사관학교, 소상공인사관학교 등과 연계해 창업관련 지원도 다양하게 이뤄지고, 찾아가는 일자리 이동사업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계층별로 특화된 취업지원 사업도 대대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중장년에게는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경력형 활용 취업지원, 사회공헌활동 지원, 맞춤형 전직교육 등 역량강화에 통한 재취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에게는 재직과 장기근속 지원,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NEW-WAVE 사업,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내일 사업), NCS 교육·자격증 취득·면접비 지원 등 취업역량 강화 사업을 펼친다.

여성에게는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위한 직업훈련과 온라인 취업역량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새롭게 탈바꿈하는 일자리센터가 방문 한 번에, 전화 한 통에, 딱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고용기회와 도민 복지 증진을 목표로 일자리센터를 운영해 공

공 열어놓을 취업시장에 그나마 작은 불씨를 지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 일자리센터는 도민들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좀 더 많은 기능을 탑재해 새 출발 한다"며 "도내 고용서비스 허브기관으로서 지역내 일자리 기관과 함께 도민 한사람 한사람 딱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도민이 만족하는 일자리 공급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센터 내 상담창구, 전문교육실, 영상콘텐츠 제작실, 카페공간은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되며, 13명의 전문상담 인력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주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29일 진행된 전북도 일자리센터 개소식에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송지용 전북도의회의장, 조지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박광진 전북청년허브센터장, 이운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등 참석해 축하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29일) 화산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된 2분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최종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전주시청 제공)

## 2분기 백신 예방접종 '이상'없

### 전주시, 시설·동선 보완사항 재점검 등 최종 훈련

전주시가 화산예방접종센터에서 의 차질 없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해 시설과 동선 등의 보완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29일 화산예방접종센터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백신기 전주시살관리공단 이사장, 보건의료자문관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분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최종 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22일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 경찰청, 소방서 등과 합동 모의훈련을 펼쳤던 시는 지난 점검에서 미비했던 시설 부분과 동선 등을 보완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출발 상황에서도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마무리 훈련을 했다. 시는 또 보건소 접종 관련 직원

을 비롯한 유관기관 직원들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실 5곳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시는 2분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화산예방접종센터에 의료진과 행정인력, 소방인력 등 80여 명을 배치한다. 이곳에서는 4월 첫째 주부터 75세 이상 노인인구와 노인시설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루 600명이 넘는 인원에게 접종이 진행된다.

김신선 보건소장은 "수차례의 모의훈련과 꼼꼼한 점검으로 미비한 사항들을 개선하고 있다"면서 "4월 초부터 시민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접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수 기자

전북도는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올해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29일 오후 4시까지 기상정보 및 미세먼지 예보 등을 확인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 $\mu\text{g}/\text{m}^3$ 을 초과했고, 30일도 50 $\mu\text{g}/\text{m}^3$  초과가 예상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전북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 이에 따라 전북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도는 29일 오후 5시 40분 종합상황실

## 도, 올해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어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mu\text{g}/\text{m}^3$  초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부문별로

에서 도지사 주재 실·국장 사전 점검회의를 열어 산업·수송·생활 부문별 비상저감조치 계획을 재검토했다. 먼저,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한 운

행이 제한된다. 산업부문 조치사항으로는 도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29개소) 및 공공사업장(37개소)에서 작업시간 변

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중 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생활부문 조치사항으로는 일회 이상 도로청소차 운영, 소방차23대를 활용한 도로살수 작업으로 재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고, 오염물질 불법·과다 배출행위 점검 및 불법소각 순찰 강화, 취약계층(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 보호조치(공기정화설비 지원, 마스크 보급 등) 등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목의작업자 보호조치 등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각종 홍보매체(언론, 주요도로 전광판, SNS 등)를 활용해 도민행동요령을 전파할 예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올해 들어 첫 미

감염병 의심되면 '1339' 로

#용안생태습지

#황궁리유적

#고소리악

#양포캠핑장

역사고도 **백제왕도 익산**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숨결을 느껴보세요.

**다**  
**이**  
**로**  
**움**  
**익**  
**산**

다이로움 익산시